

전쟁어느



세상

2022 ANNUAL REPORT

활동 보고서



먼저,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며, 평화라는 단어로 인사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팬데믹의 파도가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바이러스는 몇몇 국가에서는 대규모 군사동원을 어렵게 했고, 국내에서는 예비군 훈련과 신병 모집을 잠정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파도가 잠잠해짐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화가 휘몰아쳐 또 다시 모든 이들에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오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세계 전쟁산업의 한 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이 평화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도, 저도, 전쟁없는세상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쟁없는세상을 곁에서 지켜보던 입장에서, 참여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 운동과 무기감시 캠페인을 중심으로 평화와 젠더 이슈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총합 무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온라인 활동의 비중이 높았던 지난 2년에 비해, 2022년 한 해는 점점 온라인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기지개를 켜던 시기였습니다. 평화캠프가 다시 평택평화센터에서 열렸고, 과거 열렸던 예비 병역거부자 모임의 맥을 잇는 병역거부자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마다 이어갔으며, DX KOREA를 비롯한 전쟁 장사의 행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층 바빠진 일정에 전쟁없는세상의 구성원들은 바쁘고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낸 듯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활동에 대한 힘을 얻은 중요한 한 해가 된 듯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전쟁없는세상이라는 단체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전쟁없는세상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마음을 담아 어떤 전략을 짜야하는지에 대한 길고 긴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이 전쟁의 시대에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듯, 평화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순간 평화라는 개념은 인류에게서 영영 소실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류는 공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경기는 끝난다”라며 정대만을 격려했던 안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와 함께 새로운 20년을 꿈꾸며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평화를 위해 걸어가 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시리아와 예멘에서, 지구상에서 전쟁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목차

02 인사말

04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6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08 전쟁없는세상의 다음 10년, 비전워크숍

12 2022년 주요 활동: 페미니즘 X 반군사주의

18 2022년 주요 활동: DX KOREA 저항행동

24 2022년 주요 활동: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행동

28 2022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34 2022년 타임라인

36 전쟁없는세상 재정보고

38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인들

39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창립 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기감시 캠페인, 병역거부 캠페인, 비폭력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무기감시 프로그램

전쟁으로 돈을 버는 전쟁기업
에 맞선 국제 무기거래 감시
운동, 서울 ADEX 등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한 저항행동, 세
계 군사비 감축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병역거부 프로그램

병역거부 프로그램은 전쟁없는세상의 철학인
반군사주의에 입각해 전쟁에 저항하는 평화운
동으로서 병역거부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3

비폭력 프로그램

비폭력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폭력·평화운동
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생산하고 보급합니다.

“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각 활동기구는 전쟁없는세상이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입니다.

총회

전쟁없는세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매년 초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운영위원의 인준 및 해임,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등 단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활동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운영 위원회

총회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합니다.

2022년 운영위원: 가람, 오리, 용석, 쭈아, 형수, 몽치, 날맹, 주, 우공, 안악희(결원이 생겨서 정관에 따라 우공과 안악희가 중간에 합류했습니다)

사무국

각각의 프로그램/캠페인 활동을 코디하는 동시에 전쟁없는세상의 홈페이지, SNS 관리, 재정 및 회원 관리 등 단체의 관리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2022년 사무국 활동가: 오리, 용석, 몽치(6월까지), 주(7월부터)

활동 기구

전쟁없는세상은 캠페인·프로그램별로 팀을 두고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팀 외에도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주요 활동기구

무기감시팀

몽치, 쭈야, 승호, 재욱, 날맹, 하늬, 주(7월부터)가 팀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전쟁기업에 맞선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무기거래 감시, 군축 활동, 방위산업전시회 저항행동을 기획하고 조직합니다.

병역거부팀

용석, 형수, 안악희, 우공, 조은, 시우가 병역거부팀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체복무제 관련 활동, 병역거부자 상담 및 지원 활동, 반군사주의 운동 담론의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비폭력팀(피망팀)

비폭력 프로그램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오리, 가람, 구로, 아침, 은선, 주(6월까지)가 함께 했으며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트레이닝 톨과 프로그램 개발, 트레이너 양성, 자료 개발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 트레이닝 진행자(촉진자)들의 네트워크로 가람, 경수, 구로, 날맹, 덴마, 랑, 몽치, 은선, 수영, 아침, 열쫂, 오리, 용석, 조은, 주, 쭈야, 트리, 펭귄 모두 18명의 트레이너가 함께했습니다.

젠더 트레이닝 리뉴얼 TF

2022년 전쟁없는세상의 중점 사업인 젠더 트레이닝을 리뉴얼하기 위해 모인 일시적인 팀입니다. 세미나를 걸쳐 새로운 젠더 트레이닝을 개발했고 평화캠프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오리, 몽치, 아침, 가람, 쭈야, 주, 은선이 함께 했습니다.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 TF

2022년 전쟁없는세상의 중점 사업인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팀입니다. 10명의 여성활동가를 인터뷰해서 인터뷰집을 발행했습니다. 용석, 우공, 열쫂, 아침, 쭈야가 함께 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다음 10년, 비전워크숍



2012년 비전워크숍 사진

전쟁없는세상은 2022년 1월, 2월, 9월 총 3차례 비전워크숍을 열고 전쟁없는세상의 다음 10년 활동 목표와 그에 걸맞은 조직 체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새해 벽두부터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정신없이 바빴던 한 해를 보내면서도 팀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비전워크숍을 개최해야만 했던 건 단체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3년, 우리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전쟁없는세상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디에 집중할지를 다시 정해야 할 필요성을 활동가들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없는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캠페인으로 안팎에서 인식되었고, 실제로도 전쟁없는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활동해 왔던 건 병역거부 캠페인입니다. 병역거부 캠페인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와 한국 사회에서 군대에 병력을 충원하는 방식인 징병제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는 지난 20년 간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고 병역거부를 독려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2019년 12월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는 것을 주된 골자

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0년 10월 마침내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목표로 했던 병역거부 캠페인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캠페인의 방향 전환이 필요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스터디 그룹으로 시작해서 2008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으로 활동의 시동을 걸고 2012년 확산탄 반대 캠페인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전쟁없는 세상의 두 번째 핵심 캠페인인 무기감시 캠페인도 여러 고충을 겪고 있던 터였습니다. 활동의 전략이 병역거부 캠페인과 너무 다르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문제 등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도 전쟁없는세상은 (외국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비전워크숍을 열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비폭력 프로그램을 전쟁없는세상의 새로운 활동으로 삼 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내부적으로 운동에 대한 주제감과 책임감 부재, 평 등하고 자율적이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구조의 한계, 여성활동가와 남성활동가의 성별 분업의 문제를 식별했고 사업적으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틀을 넘어서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새로운 목표를 서로, 또 함께 합의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후 다시 진행된 비전워크숍은 조금 다른 토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10년 전과 다르게 전쟁없는세상은 반전운동단체로서 전쟁을 가능케 하는 군사화된 일상(징 병제도와 무기거래)에 주목하는 병역거부 캠페인과 무기감시 캠페인, 적은 자원으로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운동을 고민하는 비폭력 프로그램까지 메인 캠페인이 3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전쟁없는세상이 단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참여한 연대활동들도 훨씬 다양해 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10년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면서도 이것이 무작정 우리 활동을 늘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중 무엇을 그만하거나 지금보 다는 적게 할지, 계속하고 많이 할 것인지를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여 전쟁없는세상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목표를 수정하고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전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거부 캠페인의 경우,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선호가 적었고 제도와 정부 시스템에 적극 개입하는 활동이 전쟁없는세상의 강점이 아닌 점, 다른 단체들이 오히려 더 경험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현재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에서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병역거부 캠페인은 대체복무보다는 병역거부 본연의 의미인 전쟁거부에 방점을 실어 여성병역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병역거부자를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 무기감시팀의 경우 지금까지 부족한 자원으로 무기거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였으나 한 팀이 맡기에는 서브캠페인이 너무 많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중 무기박람회에 대한 저항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기거래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고 현재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무기감시팀이 간간 해왔던 여러 활동 중 한국산 무기(경찰무기 포함) 수출에 대한 대응과 정부의 방산 세일즈 외교 대응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고, 전쟁없는세상이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라 판단했지만 장기적 캠페인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출한 무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이 이슈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는 정도로 할지, 장기적인 캠페인으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지를 타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관련한 활동을 전쟁없는세상의 다음 10년 활동 목표로 새롭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체복무 도입에 바빠) 늦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비폭력 프로그램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나, 이상적으로는 비폭력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비폭력 프로그램의 문제의식이 모든 이슈 베이스의 활동의 방법론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사회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닌 만큼 전쟁없는세상의 다른 캠페인(병역거부, 무기감시)과

성격이 다릅니다. 외부에서 비폭력 프로그램에 단체 활동과 운영에 관한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비슷한 활동을 하는 지원 기관들도 이제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비폭력 프로그램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전쟁없는세상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10년 활동 방향을 위와 같이 도출하였고 이에 걸맞은 조직 구조 개편에 관해서는 그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회는 위에서 결정된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병역거부 캠페인은 위에 결정된 활동 위상에 걸맞게 캠페인명을 변경하고 사무국 활동가가 코디하는 워킹그룹(팀)으로 운영한다.
- 무기거래감시캠페인도 위에 결정된 활동 위상에 걸맞게 캠페인명을 변경하고 사무국 활동가가 코디하는 워킹그룹(팀)으로 운영한다.
-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관련한 활동은 새로운 캠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2023년 하반기에는 태스크포스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캠페인 의제를 개발한다.
- 한국산 무기 수출 대응 및 정부의 방산 세일즈 외교 대응 활동에 관해서는 장기적 캠페인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2023년 하반기 6개월 간 운영한다.

전쟁없는세상이 전쟁과 군사주의에 맞서 일궈갈 앞으로 10년,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해 주세요!

2022년 주요 활동

페미니즘 × 반군사주의



전쟁없는세상 비전워크숍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키워드로 2022년 중점사업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쟁없는세상의 모든 활동은 페미니즘 철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22년에는 거기에 더해 페미니즘의 관점을 전쟁없는세상 활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페미니즘 이슈와 반군사주의 활동을 결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인 만큼 병역거부팀, 무기감시팀, 비폭력팀을 아우르는 새로운 TF를 꾸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TF, 젠더 트레이닝 리뉴얼 TF와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 TF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2021년,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 때 인기가 좋았던, 온라인으로 함께 영화를 보고 토

론을 하는 전쟁없는세상의 행사 ‘활동가를 위한 방구석 1열’도 2022년에는 ‘페미니즘 × 반군사주의’라는 키워드에 맞춰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전쟁과 군사주의가 어떻게 여성을 착취하고 어떤 폭력을 여성에게 휘두르는지를 살피는 다큐멘터리 영화 <호스트네이션>을 함께 본 뒤 감독님과 두레방 활동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젠더 트레이닝 리뉴얼

전쟁없는세상 비폭력 트레이닝 워크숍 주제 중에 ‘젠더 트레이닝’이 이미 있습니다. 이 젠더 트레이닝은 조직 운영과 사회운동을 젠더적 관점에서 좀 더 민주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틀입니다. 조직(운동) 내부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사회운동에서 내부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우리 조직과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트레이닝입니다.

이 젠더 트레이닝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없는세상의 주 활동 분야인 군사안보 분야에서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군사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왜 페미니즘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내용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데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젠더 트레이닝을 리뉴얼하는 TF(오리, 뭉치, 아침, 가람, 쭈야, 쥬, 은선)를 구성했습니다.

트레이닝 툴을 리뉴얼하기 위해 군사주의와 안보,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젠더 트레이닝 리뉴얼 TF 멤버뿐만 아니라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들과 다른 팀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이 함께 했습니다. 군사주의, 전쟁과 안보, 군대-남성(성)/여성(성), 페미니즘/성별권력(성차별)을 키워드로 모두 4회차에 걸쳐 세미나를 했는데요,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신시아 인로),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베티 리어든),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김엘리), 『여성, 총 앞에 서다』(신시아 코번) 같은 책과 정희진, 조영주, 권인숙, 조서연, 허윤, 오미영, 정유진 등 여러 페미니스트들이 쓴 논문과 기사를 읽으며



토론을 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몸을 움직이는 액션을 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세미나는 오랜만이었는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무척 흥미로운 배움과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젠더 트레이닝 툴을 새롭게 구성하여 평화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022 평화캠프: 젠더화된 군사주의와 맞짱뜨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가 오랜만에 평택평화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평화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평화캠프 주제가 주로 ‘캠페인 전략 세우기’였는데, 이번 평화캠프에서는 페미니즘과 반군사주의가 키워드인 만큼 군사주의가 어떻게 젠더화되어 있고, 젠더화되어 있는 군사주의와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평화캠프 제목부터가 “젠더화된 군사주의와 맞짱뜨기”였습니다.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병역거부자들,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3박4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군사주의와 전쟁이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기지촌’입니다. 특히 평화캠프가 열린 평택에는 해방과 함께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기지 주변으로 기지촌이 형성된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캠프를 평택에서 하는 만큼 캠프 첫날은 평택 미군기지 주변의 기지촌과 클럽이 있던 자리, 그리고 기지촌 여성들이 모여 살았던 일곱집매를 둘러보고 기지촌 여성운동을 해온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 페미니스트의 호기심으로 군사주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서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재밌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스라엘 여성병역거부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여성병역거부자>를 보고 한국의 여성병역거부자 윤슬, 해군 장교 출신으로 군인권 활동을 하는 방혜린, 병역거부자이자 퀴어인 유정민씨님을 모시고 영화와 여성병역거부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눴습니다.

셋째 날은 안보와 젠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요, 안보 분야가 어떻게 젠더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젠더화된 군사주의와 맞짱 뜨는 방
법을 찾아봤습니다. 군사주의와 치열하게 싸
우는 여성평화활동가들(전쟁없는세상 운영
위원 뭉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황수
영, 강정평화네트워크 활동가 엄문희)의 이야
기를 듣고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비협조와 불
복종으로 전쟁과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선언
문을 써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 프로그램
들도 알았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막힌 점이
나 어려웠던 점을 동료 활동가들이 진단하고
해결책을 처방해주는 캠페인 클리닉, SNS를
이용한 홍보, 도서 정보를 얻고 절판된 책 구
하는 법, 보드게임을 통해 배워보는 사회운동
처럼 흥미로운 워크숍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

병역거부운동은 태생적으로 군입대를 거부
하고 감옥에 가는 남성 병역거부자가 주목을
받고, 여성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거나 병역거부자의 조력자나 지지자 정
도로 오해 받기도 합니다. 이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운동, 특히
병역거부운동 안에서 성별화된 역할을 극복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집>를 처
음 떠올리고 기획한 것은 오랫동안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들이 고민해온 이러한 문제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여성활동가들을 인터뷰하
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여성활동가 인터뷰
TF(용석, 우공, 열쫂, 아침, 쭈아)’를 구성했습
니다. TF에서는 회의를 거쳐 우리가 인터뷰
할 사람을 정하고, 각각의 인터뷰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의논했습니다. 함께 질문을
뽑고,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뷰 녹취
록을 바탕으로 인터뷰집 원고를 작성했습니
다.

오랫동안 한국 병역거부운동을 이끌어온 최
정민(오리)과 여옥에게는 전쟁없는세상과 병
역거부운동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
를,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장 장박가람과 김
한민영(뭉치)에게는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로
서 함께한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징병제 연구자 강인화에게는 병역
거부운동의 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을, 윤슬에
게는 여성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쿼어 병



억거부자 유정민석과 그의 병역거부 선언을 함께 한 최현숙에게는 유정민석이 병역거부를 할 당시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고민들과 병역거부 과정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황수영에게는 한국 평화운동이라는 맥락 안에서 전쟁없는세상과 병역거부운동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병역거부자 홍정훈의 후원회장이었던 김경희에게는 병역거부운동의 한 방식으로 병역거부자 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자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신의 경험에 바탕으로 병역거부운동에서 여성활동가의 위치와 역할, 병역거부운동과 젠더, 페미니즘과 반군사주의 평화운동에 대한 여러 고민과





사유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활동가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평화운동이 왜/어떻게 페미니즘과 만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집은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혹은 아래 QR 코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없는세상 블로그에서는 나동혁(병역거부자),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이가현(노동활동가)의 인터뷰집 리뷰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활동가인터뷰집 다운로드](#)

무기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2022년 주요 활동

DX KOREA 저항행동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 2022가 지난 9월 21~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짝수 해마다 열리는 DX KOREA는 국내 최대의 지상무기 박람회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살상무기가 전시되고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과 무기상인, 방산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무기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이거나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들도 DX KOREA의 'VIP'로 초대됩니다.

예멘 내전 개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요르단, 무력분쟁 지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도 이번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국 군 및 업계 관계자들만 초대되었던 재작년과 달리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고, 일반 관람객을 위한 퍼블릭데이도 다시 열렸습니다.

무기상인들의 소문난 잔치에 전쟁없는세상

이 빠질 수 없죠. 전쟁없는세상은 2013년부터 매해 번갈아 열리는 서울 ADEX(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와 DX KOREA에 찾아가 무기장사의 본질을 알리는 전시, 무기장사를 방해하는 직접행동 등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무기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무기가 팔리면,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왔습니다.

액션그룹과 비폭력 직접행동

한 달 전부터 직접행동을 위한 액션그룹을 모집해,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행동 구상부터 피켓 제작까지 참가자들이 행동을 직접 꾸렸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후위기와 전쟁, 무기산업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무기산업과 군사활동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기후위기는 더 많은 전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DX KOREA 2022가 9월 19~24일 기후정의행동 주간과 일정이 겹친다는 것에서 착안했는데, 이는 지난 8월 평화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캠페인 클리닉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였습니다.

비폭력 직접행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액션그룹 운영은 동물권 활동가, 장애인권 활동가, 대안학교 학생 등 그동안 전쟁없는세상이 만날 기회가 적었던 새로운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물놀이, 페인트 투척,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액션그룹에서 나왔는데요. 모두 실행할 수는 없어 아쉬웠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들 중에 어떤 것을 실행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개막 전날 오전에는 DX KOREA 2022 공식 기자회견에 맞춰 DX KOREA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죽음의 잔치 DX KOREA를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말이죠. 전쟁없는세상과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피스모모 총 7개 단체가 참여했고, 발언을 통해 DX KOREA에 초대받는 ‘VIP’들의 실체를 밝히고, 무기거래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불러오는지 강조했습니다.

환영 만찬

같은 날 저녁에는 ‘VIP’ 400여 명이 초대받은 환영 만찬이 인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호텔 2층 행사장 앞에 난입해 피켓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STOP ARMS FAIR!”라는 구호를 외쳤고, 창밖으로 내다 보이는 육교에는 **“환영합니다 / 전쟁범죄자 고객님”**이라 적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뜨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멘 내전에서 민간인 학살 등 술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관계자들은 말입니다.



비즈니스데이

비즈니스데이 기간에는 무기상인들과 각국의 무기획득 담당자들이 적극 교류하며 무기 거래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비즈니스데이 둘째 날, 현대로템 부스에 전시된 K2 전차와 K808 장갑차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부스 담당자가 부하 직원에게 연주를 가리켜 “우리가 기획한 거 아니야?”라고 묻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전쟁기계를 가득 찬 전시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선율과 저항의 외침이 무척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행동은 DX KOREA 측에서 업무방해로 활동가들을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행사 주최 측이 경찰을 얼마나 다했는지 바로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행동에 참여한 8명 전원에게 전화를 돌려 경찰 조사 받을 날짜를 정하라고 묻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당당하게 행동에 참여했던지라 뉘네다고 도망갈 사람들도 아니고, 전혀 급한 일도 아닌데 말이죠. 앞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벌금으로 우리의 직접행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정의행진

일반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는 퍼블릭데이 첫날이자 9.24 기후정의행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잠시 전시장을 떠나 색다른 행동을 기획했습니다. 청계천 변의 한화 본사 건물 앞에서 **“한화 / 본**





“**캐는 전쟁장사 / 부캐는 기후악당**”이라는 문구와 한화 로고가 그려진 커다란 현수막을 애드벌룬에 매달아 띄웠습니다.

이후에는 애드벌룬을 들고 광고로 이동해 매 아침 지나는 기후정의행진 행렬을 맞았습니

다. 국내 최대 무기생산 기업이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경영을 내세우는 한화의 모순된 행보에 대한 일침에 많은 행진 참가자가 호응해 주셨습니다. 반군사주의 운동과 기후위기 운동의 연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





습니다. ‘9.24 이후 기후운동 전망(방향) 토론회’의 일부로 9.24 기후정의행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자리에 오리 활동가가 패널로 초대받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퍼블릭데이

퍼블릭데이 둘째 날에는 전시장 입구와 전시장에서 가까운 대화역 사이에서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피켓은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쟁과 무력분쟁에 DX KOREA가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전쟁과 무기생산을 멈추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DX KOREA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 메시지를 보고 한 번씩 멈춰 서서 무기박람회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이번 DX KOREA 저항행동을 계기로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을 신설해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개인들의 소액 후원과 빙고 지구분담금 30만 원을 합쳐 감사하게도 모두 121만 원이 모였습니다.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은 전쟁없는세상에서 진행하는 각종 직접행동을 준비, 실행하고 홍보하는 비용과 벌금,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비폭력 직접행동은 누구나 참여하여 평등하게 기획하고 책임을 민주적으로 나누는 활동입니다.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은 상시 열려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올해 DX KOREA 저항행동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져 아쉬운 것은 외국 평화운동 단체들과 연대가 액션 사진과 영상을 서로 SNS에 공유하는 정도에 그친 점입니다. 2021년 ADEX 저항행동 당시에는 호주(Make West Papua Safe), 콜롬비아(BDS Colombia)에서 ADEX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연대행동이 진행됐고, 한국에서도 12월에 열린 엑스포 디펜사(Expodefensa)에 저항하는 콜롬비아 활동가들과 연대행동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앞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연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DX KOREA 저항행동을 계기로 맺어진 인연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주요 활동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활동

2022년은 전쟁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2월 24일, 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푸틴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부차 지역 학살, 러시아군이 확산탄과 백린탄을 사용한 정황과 증거를 비롯한 전쟁범죄가 일어났고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거나 전쟁을 피해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폐허가 된 도시에 남겨진 동물들의 사진과 영상이 주목 받은 것처럼 전쟁 피해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전투로 죽고 다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인을 숫자도 늘어난 것입니다.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 데 러시아의 푸틴은 오히려 동원령을 내려 러시아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등 확전의 의지를 다지기만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평화적인 수단보다는 군사적인 방식에 의존하며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 또한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

한 중재에 나서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 삼아 국방비를 늘리거나 한국 정부처럼 전쟁을 틈타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나라도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달리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을 멈추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활동은 전 세계 여러 대륙에서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여러 활동이 조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전쟁이 일어난 직후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정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였는데도 수백 명의 사람이 직접 만든 전쟁 반대 피켓과 상징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겨울



바람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수십에서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과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러시아를 규탄하고, 전쟁터 우크라이나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느끼는 불안을 전하고, 화석연료와 이 전쟁의 연관관계를 말하는 소중한 이야기들과 대안학교 학생들의 합창 공연, 시민단체 회원 모임의 합창 공연, 가수들의 노래와 대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합주, 타악기 공연 등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4월에는 주말 낮 시간에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평화집회를 조직했습니다. 덕분에 평일 저녁에는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전쟁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액션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입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조직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정부의 전쟁 자금줄이 되고 있는 러시아 화석연료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하여 전쟁 자금을 대주고 돈을 버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4월 26일에 열었고, 6월 2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전쟁을 지속시키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전쟁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명백하게 침략적인 성격을 보이는 전쟁에서 침략당한 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부담감도 느꼈지만,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가능하며 무기 지원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겪는 전쟁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활동가들의 소식 알리기

전쟁이 일어나고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여러 글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은 많지 않



았고, 그중에서도 전쟁에 저항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인 모두가 군사적 대응에 치중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을 텐데, 과연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활동가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저항을 이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없는세상이 직접 **우크라이나 평화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번역해 한국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병역거부자이자 Ukrainian Pacifist Movement의 사무국장인 유리 셀리아젠코의 인터뷰를 여러 개 번역했고, 유리와 러시아 평화주의자 올렉 보드로프의 대담도 번역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병역거부를 하고 독일에 망명 신청을 한 러시아 병역거부자 마크 로만코프의 인터뷰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푸틴을 비판하는 동시에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군사적인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비판하거나, 러시아 내부의 평화활동가들의

저항과 러시아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소개하는 등,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의 비폭력인 전쟁저항자들의 시선과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에 저항하는 러시아 시민들과 연대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찬성하고 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전하고 싶지만, 사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반전 집회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평화를 위한 액션에 나서는 러시아 시민들을 구속하거나 구금하는 등 인권 침해해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에 저항하는 러시아인들의 소식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12월 1일 평화수감자의 날을 맞이해서,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다가 구속되거나 구금



된 러시아의 평화수감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수한 러시아인들이 구속되거나 구금된 가운데 활동가, 예술가, 인권변호사, 정치인 등 중 5명을 선정에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편지쓰기를 병행해 모두 60통의 엽서를 발송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전쟁 중이라 우리가 보낸 엽서가 잘 도착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점이 아쉽지만, 전쟁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러시아의 평화수감자들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징집대상자 중에서는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원령을 발표하고 몇 분만에 이스탄불(튀르키예)과 예레반(아르메니아)으로 가는 기차표가 매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한국행을 택한 러시아 병역거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는지, 한국 정부는 어

떤 절차로 그들을 불허했는지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천공항에서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머핀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이 병역거부자 난민들을 지원하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연말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난민 심사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이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이 제대로 된 난민 심사 절차를 걸쳐 난민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2023년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2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아무래도 활동보고서라는 것은 한 해 동안 단체가 진행했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고 외부적으로 잘 알려진 활동들을 주로 포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중요하지만 언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슈도 많고 행사를 위해서 또 조직운영 측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 꼭지는 그런 활동들을 모두 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Q 아무래도 모금 캠페인 얘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간혹 소셜미디어를 통해 읍소(?)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모금전략이 없었던 전쟁없는세상에서 최초의 시도였는데

우공: 전쟁없는세상은 이슈 중심의 캠페인에 비해 모금 등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활동에는 지금까지 거의 신경을 못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무국 3인 모두가 캠페이너로 모금, 홍보 등을 담당하는 활동가가 따로 없고 회계 등 최소한의 활동을 캠페이너들이 나눠 맡고 있는 실정이었다. 작년에 전쟁없는세상에 큰 적자가 예상되면서 도움 요청을 받아 3월 내부 모금 세미나를 진행했고 재정TF를 구성해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을 도왔다. 4월부터 두 달간 정기 후원인 모금 캠페인과 9월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큰 호응을 얻어 다행히 예상보다는 큰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모두 후원인 여러분들 덕이다.

Q 모금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2022년은 예비군 병역거부 문제로 한 해를 열었다. 벌금과 법률 지원 활동비 모금이 성공적이었는데

형수: 전쟁없는세상의 노력으로 지금은 병역거부자가 과거처럼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

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데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 시작된 재판이 중단되지 않았던 예비군 거부자들은 여전히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예비군 거부자 조성현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이상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다. 더욱이 둘은 벌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남아있었다. 저는 십 수 차례 재판을 마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아 사회봉사를 해야 했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예비군 병역거부자도 있었다.

약희: 그래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셜펀치를 통해 400만 원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다. 내부적으로 기대한 것보다도 많은 710만 원가량이 모였다.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준 분들 덕분에. 현재는 조성현, 이상, 김형수 3명 모두 법정 처분과 재판이 끝난 상황이다. 예비군 기간도 종료되어 더 이상 예비군 훈련 거부로 고발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는 일도 없게 되었다. 기부해 주신 돈 중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인데 곧 기부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Q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수혜자들의 존재를 직관한 느낌이다

쭈야: 맞다. 록히드마틴은 전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생산원으로 전쟁과 전쟁준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약 650억 달러에 달한다. 한화로 8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들은 예멘, 팔레스타인, 콜롬비아, 시리아, 웨스트파푸아 등 세계 곳곳의 전쟁과 유혈사태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억압



적인 정부와 독재정권들에게도 무기를 공급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록히드마틴의 주가가 최대 21%나 상승했다. 끔찍한 살상과 억압이 록히드마틴에게는 최대의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몽치: 그래서 4월 21일 록히드마틴의 연례 총회를 맞아 열린 ‘스탑 록히드마틴 국제행동의 날’ 공동액션이 기획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지사가 위치한 여의도 IFC몰에서 록히드마틴의 비윤리적인 무기산업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100여 개 평화 단체들이 함께했다. 록히드마틴은 무기 생산을 철회하고 평화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계와 권리가 위협당해서는 안 된다.

Q 그리고 곧 세계군축행동의 날 액션도 있었다

몽치: 스탑 록히드마틴 국제행동의 날이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 액션이라면 세계 군축행동의 날은 정부의 군사비 지출을 문제 삼는 액션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020년 대비 0.7% 늘어난 2조 1,130억 달러, 한화로 약 2,630조 원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겼다. 특히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2021년 3.5%나 증가하였다. 한국은 2021년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며 9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쭈야: 당시 유럽과 미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분으로 국방 예산 증액과 각종 무기 도입을 공식화했다. 방산업체의 주가 역시 연일 상승 중이었다. 한반도 문제를 보더라도 2018년 남북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17년 약 40조 원이었던 국방비는 2022년 약 55조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투자가 크게 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오히려 군비 경쟁을 가속하여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Q 무기는 전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도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데

쭈: 스리랑카에서 한국의 대공화공이 만든 최루탄이 사용된 것이다. 당시 스리랑카에서는 극심한 경제난이 원인이 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스리랑카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뿐 아니라 군 병력까지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고 있었다. 특히 과도한 최루탄 사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7월에는 최루탄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옹헤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공화공과 한국씨앤오테크는 2017년부터 최루탄 2만 발 이상을



스리랑카로 수출했다. 한국은 1999년 이래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생산 및 수출은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최루탄 500만 발 이상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인권침해가 빈번한 국가들로 수출했다. 이에 8월 3일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체들이 스리랑카 최루탄 수출 금지와 최루탄 수출허가 심사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액션을 한 것이다.

Q 병역거부 캠페인으로 넘어가 보자. 올해 병역거부자 모임을 진행했다

악희: 우리는 과거에도 ‘예비병역거부자 모임’을 열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병역거부를 준비했었다. 이제는 대체복무제가 생겨 병역거부자가 무조건 감옥에 가는 상황이 아닌 만큼 예전과는 다른 이름과 내용으로 모임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우공: 모임은 병역거부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대체복무제도와 대체역 심사를 살펴보고 함께 준비해 보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언어로 병역거부의 양심을 담아낸 소견서도 써보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미 병역거부를 했고 현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는데 호응이 좋았다.

Q 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도 있었는데

형수: 이 문제는 실형을 1년 이상 선고받고 가석방된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에 의거 가석방 후에도 남은 실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인권침해 사안이다. 이미 2014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이다. 마침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년 2월 28일 가석방된 오경택 씨가 이것 때문에 20대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평소 구금시설과 수용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해 왔던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제안으로 희망법, 민변 공익인권변

론센터,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6월 6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Q 비폭력 트레이닝도 여전히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람: 매년 진행하는 참여연대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시작으로 총 7차례의 외부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8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아무래도 전쟁없는세상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회운동 단체 내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로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진행하는 트레이닝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일방적인 강의형식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볼 질문들을 던지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오리: 이를 위해서는 트레이닝 진행자들의 네트워크인 ‘망치’의 역량이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자료도 생산해야 하고 단체별로 맞춤형 트레이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른 트레이너들이 진행했던 트레이닝을 반면교사 삼아 경험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망치는 내부 트레이닝과 경험 나누기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군사주의와 젠더 관련한 트레이닝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았다.

Q ‘전없세가 궁금해’는 과거에는 못 보던 형태의 행사였다

오리: 전쟁없는세상은 따로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가 없기도 해서 일반회원, 후원회원 혹은 잠재적인 회원 대상의 행사를 한 적이 별로 없다. 최근 3년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다. 우리는 ‘전없세가 궁금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전쟁없는세상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고 어떤 식으로든 전쟁없는세상과 함께 액션을 할 수 있는 풀을 만들고자 했다. 전쟁없는세상이 하는 액션은 막 탱크에 올라가고 병역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그런 것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웃음) 하나의 액션을 하는 데는 정말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임에서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다.

जू: 2019년 말에 ‘세상을 바꾸다: 광장에서 국회까지(세바꾸)’라는 사회운동 전략 보드게임을 개발했다. 그런데 곧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획한 워크숍들을 진행하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궁리해보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돈도 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복잡했다. 이번 ‘전없세가 궁금해’는 미뤄진 ‘세상을 바꾸다’ 워크숍도 진행할 겸 검사검사 기획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어서 총 3차례의 워크숍 중 첫 번째 워크숍은 코로나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

Q 작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이 놀라웠다

가람: 그렇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

의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전쟁이 차별과 혐오가 폭력적으로 발현한 결과라 여기는 전쟁없는세상의 평화운동과도 맥을 같이 한다. 마음 같아서는 많은 활동을 같이 하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 상 차별금지법 유세단이 사무실 근처에 왔을 때 유세에 결합하고, 하루 단식에 참여하는 정도만 할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웬 유세인가 하시겠지만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유세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유세차량이라고 하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유심히 보시고 기호 몇 번이나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랬다. (웃음) 창의적이고 유머러스한 사회 운동 전술이었다고 본다. 4월에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이 진행되었고 5월부터는 단체와 개인의 동조단식이 이어졌다. 전쟁없는세상도 미약하지만 하루 단식에 연대하며 힘을 보탤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응했다. 온라인 평등밥상, 평등텐트촌 같은 프로그램에 이용석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다.

Q 전쟁없는세상 블로그의 인기는 여전히다

용석: 작년에는 총 55편의 글이 블로그에 게재되었고 홍은전, 조서연, 열풍, 방혜린 님이 고정 필진으로 애써주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관련 글이 많았고 인기도 많았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선이나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랬던 거 같다. 가장 인기 있었던 글은 방혜린님의 <‘해병문학’과 해병대: 황근출 해병님과 대한민국 남성성>이다.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오리의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폭력 시민 저항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마주하며>, 제가 쓴 <무기 지원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일까?> 등도 큰 사랑을 받았다.

Q 매달 2차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용석: 2022년 한 해 동안 뉴스레터 구독자 숫자가 176명이 늘어 1059명이 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4월부터는 뉴스레터를 매달 1일, 15일 고정으로 발행하고 있다. 정해진 날짜에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루틴을 후원회원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사실 2022년부터 조금씩 개편을 해나가고 있는 셈인데, 2023년에는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도 변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다.

2022년 타임라인

• 예비군 병역거부자 벌금 모금

1월

•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촛불집회(매주 금요일)
• 제 3회 활동가의 방구석 1열

3월

• 병역거부의날 행사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동조 단식

5월

•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
• 병역거부자 모임

7월

• DX KOREA 저항행동
• 기후정의행진 참여

9월

• 전업세가 궁금해

11월

2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전쟁없는세상 총회

4월

-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평화행진
- 스타트 록히드마틴 국제행동
- 세계군축행동의 날
- 후원회원 모집 모금 캠페인

6월

- 병역거부자 모임
-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 공동 기자회견
- 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8월

- 한국산 최루탄 스리랑카 수출 금지 촉구 기자회견
- 평화캠프: 젠더화된 군사주의와 맞짚뜨기

10월

-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집 발간
- 동물권리장전 행진 참여 및 발언

12월

- 평화수감자의 날 편지쓰기 행사
-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관련 기자회견

전쟁없는세상

2022 재정보고

2022년 전쟁없는세상 수입은 2021년에 비해 약 2,0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프로젝트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지원 받아 외부 지원금이 2021년에 비해 약 100만 원 정도가 줄었으나 CMS와 신용카드를 통한 정기후원인들의 후원금이 약 8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4월부터 6월 초까지 진행한 모금 캠페인으로 일시후원금을 기탁해주신 후원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출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적자를 보지 않은 것은 모두 후원인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출은 2021년에 비해 약 2,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2021년 주 5일, 4일, 3일이던 사무국 활동가들의 근무일수를 주 5일 2명, 주 3일 1명 이렇게 하루를 늘렸습니다. 당연히 지출이 늘었지만 그 덕에 더 많은 활동을 덜 지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21년에는 2020년 12월에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연세를 한꺼번에 계산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월세를 지출하지 않았었는데 2022년에는 월세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2021년 지출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군거부자에 대한 벌금, 2021년 아덱스 저항행동에서 부과된 벌금도 전년과 다르게 지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후원금	정기후원	75,393,843	72.3
	비정기후원	3,473,000	3.3
	지정기탁(예비군거부)	5,180,000	5.0
기타 사업 수입	행사수입	588,981	0.6
수입이자		10,160	0.0
일반보조금		1,405,210	1.3
지원금		15,000,000	14.4
잡수입		57	0.0
회비수입		3,281,963	3.1
총계		104,333,214	100

지출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인건비	급여	61,440,000	53.1
	법정복리비	4,950,140	4.3
	복리후생비	1,356,310	1.2
	퇴직금	4,560,000	3.9
운영비	회의비	1,589,240	1.4
	통신비	1,420,439	1.2
	우편발송비	251,560	0.2
	영상제작인건비	450,000	0.4
	사업관리비	412,700	0.4
	사무용품비	216,030	0.2
	지급수수료	4,964,047	4.3
	지급임차료	5,597,500	4.8
사업비	연대사업비	546,050	0.5
	영상제작인쇄비	5,251,860	4.5
	우편발송비	73,820	0.1
	사업행사비	1,211,030	1.0
	통신비	781,944	0.7
	지급수수료	11,754,500	10.2
	지급임차료	5,250,500	4.5
사업 외 비용	잡손실	3,600,050	3.1
총계		115,677,720	100

2021년 이월금	2022 총수입	2022 총지출	2022 이월금
43,360,346원	104,333,214원	115,677,720원	32,015,840원

프로젝트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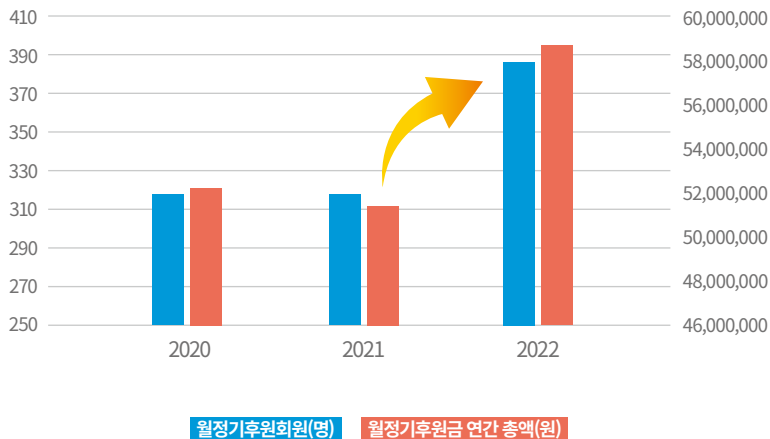
사업명	지원처	금액(원)
2022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금요평화춤통	인권재단 사람 인권활동119	2,000,000
2022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바라본 평화운동	국가인권위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13,000,000
총계		15,000,000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인들

2022년 한 해 동안 모두 520명의 개인과 단체가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예비군 병역거부자 벌금 모금, 전쟁없는세상 정기후원인 모집, 비폭력 직접 행동 기금 모금 등 활발하게 이어진 모금 캠페인으로 많은 분들이 전쟁없는세상과 새롭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무려 84명이 2022년 신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3명이 개인 사정으로 후원을 중단해서, 2022년(12월 31일 기준)에는 전년 대비 22.4% 성장(71명 증가)하여 모두 387명의 후원회원이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월정기후원회원 변화 추이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우리의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과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상근자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캠페인 사업비 등 단체의 여러 활동에 사용됩니다.

정기 후원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평화 행동에 쏟고 싶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안정적인 활동비를 만들어 주세요.



비정기·일시 후원

살상 무기 거래에 반대하고 병역거부자와 함께
전쟁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만들어 주세요.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다양한 병역거부 등 다양한
직접행동의 실행, 벌금, 재판 비용 등으로 쓰입니다.



후원안내

withoutwar.org/donate

문의: 02-6401-0514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2-921333

예금주: 전쟁없는세상



전화 02-6401-0514

이메일 peace@withoutwar.org

홈페이지 withoutwar.org

페이스북 facebook.com/withoutwar.org

인스타그램 [@withoutwar](https://www.instagram.com/withoutwar)

